



8월

셋째 주

가정예배

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?

찬양해요

찬송가 180장

기도해요

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

말씀을 읽어요

누가복음 13:18-21

-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
-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
-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
-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

말씀 이해하기

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.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큰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단번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.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.

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작습니다. 하지만 하나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체 반죽에 스며들어 영향을 끼칩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다르게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외형적으로는 보

잘 것 없는 규모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. 그러나 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. 복음을 통해 열방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, 주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좀 더 생각해보기

1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(19절)?

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한 알 같으니

2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30g의 무게가 나가려면 약 2만 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런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나요(19절)?

3 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(21절)?

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과 같으니라

4 누룩은 반죽에 스며들어 원재료를 변화시킵니다.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.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눠봅시다.

5 지금도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.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작은 일부터 동참해 봅시다.

기도해요

하나님, 저의 삶으로 시작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